업종내 주가 차별화 현상 한동안 지속 예상

은행 Weekly | 2026.1.19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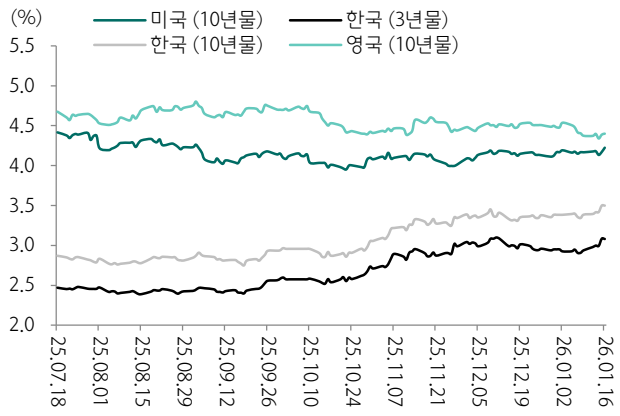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 금융당국이 2026년 가계대출 총량한도 설정 작업에 착수. 올해 더 엄격한 대출관리 기조를 세운 상태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는 2% 초반이 유력. 금융권은 이르면 2월 중순 가계대출 총량한도 설정이 마무리된 이후부터 본격 금리 경쟁 예상
- 금융당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에 한해서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5대 은행의 세금 부담이 일시적으로 3,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 소멸시효를 연장해 비용 인정을 받으면서 채권 추심을 해오던 관행을 막겠다는 의도
- 금융당국이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에 대해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불안감이 확대. 생산적 금융 실적도 평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특히 기존 대출분에 대한 반영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당국은 새로 공급된 자금만 인정 방침
- 한은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통방문 문구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삭제해 당분간 금리 인하가 없음이 기정사실화. 한은 총재는 떨어졌던 환율이 재차 1,470원대 후반까지 오른 이유는 달러가치 상승과 수급 여건 때문이라는 분석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1월 16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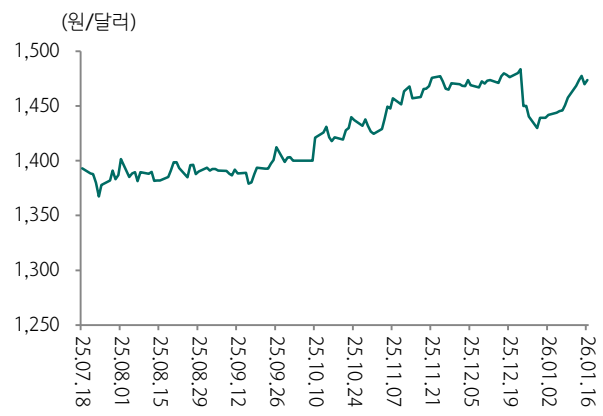
	PBR (2025F)	PER (2025F)	ROE (2025F)	ROA (2025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2025~)	Weekly Net Buy (십억원)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81	32.2	5.6		4,004,879.8	5.5	19.3	29.1	101.7	3,185.8	-154.2	-219.5	-4,013.3
은행	0.62	7.21	8.79	0.62	173,677.8	2.2	2.6	10.7	62.1	51.8	-22.1	59.1	-102.1
KB 금융	0.79	8.54	9.42	0.72	49,933.4	3.4	5.3	14.8	57.9	17.4	11.8	48.5	-49.5
신한지주	0.66	8.33	8.83	0.64	38,451.2	1.8	3.7	8.3	66.2	49.7	-6.5	-31.6	-21.7
우리금융	0.57	6.35	9.21	0.58	20,480.7	2.2	0.7	10.1	81.5	2.5	-4.8	9.8	-11.5
하나금융	0.61	6.72	9.03	0.61	26,830.6	3.8	3.9	12.0	69.7	9.9	-2.5	30.8	-47.7
기업은행	0.46	6.03	7.81	0.56	16,347.2	0.5	-1.9	7.4	43.1	-8.8	-8.5	2.9	8.8
BNK 금융	0.43	5.79	7.50	0.52	4,636.3	-2.4	-5.1	4.0	44.5	-6.8	-5.6	0.1	6.8
iM 금융	0.36	5.17	7.18	0.44	2,266.4	-2.6	-3.2	5.9	72.5	-7.2	-5.4	-0.4	7.4
JB 금융	0.75	6.47	12.05	1.02	4,547.7	-2.4	-3.4	5.5	47.1	-4.9	-0.6	-0.9	5.3
카카오뱅크	1.49	21.52	7.07	0.72	10,184.2	-1.2	0.5	-4.9	1.4	-3.4	-1.8	-8.1	12.0
삼성카드	0.70	9.65	7.36	2.07	6,117.4	1.0	-4.7	6.8	33.8	-2.6	-3.6	-0.6	2.9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2.2% 상승했지만 KOSPI 상승률 5.5%에 비해서는 초과하락세가 이어짐. 연초 이후 은행주 상승 폭은 1.8%에 그쳐 올해에만 KOSPI를 13.1%p 초과하락 중이며, 지난해 4분기 이후 누적 기준 초과하락 폭은 약 28%p에 달함. 지난주는 KB금융과 하나금융 등의 대형은행들은 주가가 상당폭 상승한 반면 중소형은행들은 국내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2% 이상씩 하락한 점이 특징적이었음.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 미국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건수가 예상치를 밑돌고,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 등으로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발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싯 위원장의 백악관 보직 잔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급부상했고 국채금리가 추가 상승. 워시가 해싯보다 매파적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 때문. 결국 전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23%로 한주동안 6bp 상승했고, 2년물 국채금리도 3.60%로 한주간 6bp 상승. 국내 국채금리는 금리 인하 문구 제외 등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분위기의 금통위 재료를 소화하며 큰폭 상승. 10년물은 3.49%로 한주간 10bp 상승했고, 3년물은 3.08%로 14bp나 상승. 한편 원/달러 환율은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의 이례적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단기에 그치면서 상승세 이어짐. 1,473.9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14.9원 추가 상승. 지난주 국내 기관은 KOSPI를 3.2조원이나 순매수한 반면 은행주 순매수액은 520억원에 그쳤고, 외국인들은 KOSPI를 2,200억원 순매도했음에도 은행주는 600억원을 순매수.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전전주에 비해서는 약해졌지만 KB금융과 하나금융 위주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수급상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
- 전주 특징주는 하나금융과 KB금융. 주가가 각각 3.8%와 3.4% 상승해 한주간 은행 중 상승 폭이 가장 컸음. 외국인이 양사를 각각 310억원과 490억원 순매수하면서 수급 여건이 타행들보다 개선된 점과 15일 금감원 제재심 안건에서 홍콩 ELS 과징금 관련 안건이 제외되고 29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 반면 BNK금융, iM금융, JB금융 등의 중소형은행들은 주가가 2% 이상씩 하락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
- 홍콩 ELS 2차 제재심이 15일에서 29일로 연기되면서 은행들이 확정액이 아닌 자체 추정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4분기 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전망. 2차 제재심이 있는 29일에는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추가 제재심이 있을 수 있고, 이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상당폭의 감경이 예상되는 만큼 3월이나 되어야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예정. 당장 1월 30일 하나금융부터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만큼 추정액 반영이 불가피한 상황. 15일 제재심에서 홍콩 ELS 안건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언론에는 당사자간 쟁점이 크고, 사안의 중대성과 제재수위 형평성을 위한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해서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보다는 MBK사태가 워낙 이슈가 되고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임. 앞으로 열리는 금감원의 제재심 단계에서는 은행들의 소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사전부과한 규모보다 감경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세부사항을 일부 가감하는데 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결국 관건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경 폭 여부일텐데 정치권에서도 ELS 과징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
- 연초 이후 은행업종내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들 간의 주가 차별화 현상 발생. 이는 과징금과 규제 노이즈, 환율 우려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중소형은행들이 대형은행들보다 상대적으로 초과상승한데 따른 되돌림 현상으로 이해.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우려 요인이지만 과징금 불확실성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은행주가 상당기간 소외되면서 valuation 매력이 부각되고 있어 외국인들이 대형은행지주사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확대하고 있기 때문. 3월 주총에서의 주요 이슈는 비과세 배당 추진일텐데 중소형은행들은 관련 재원이 적거나 거의 없는 점 또한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 은행주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가 차별화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공산이 큼
- 외국인들의 은행주 매수세 유입 조짐과 과징금 불확실성 완화 기대, 상법개정안 1월 임시국회 처리 예정 이슈 등을 감안할 때 4분기 실적 발표 시기를 전후해 은행주 투자심리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기존 의견 유지. CET 1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고, 과징금 불확실성과 규제 관련 우려가 주가에 더 반영되어 있는 대형 은행지주사들 위주로 관심을 확대할 것을 권고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KB금융(매수/TP 178,000원), 하나금융(매수/TP 1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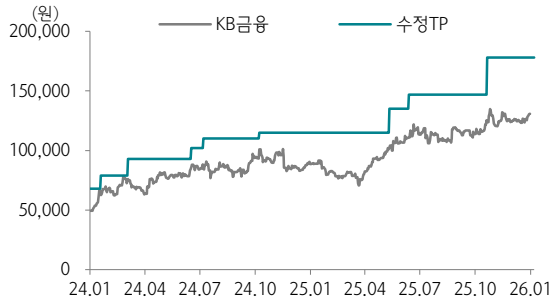
- KB금융은 4분기에도 강력한 경상 펀더멘털 확인 예상. 홍콩 ELS 및 은행 LTV 담합 의혹 과징금 우려는 완화 가능성이 높고, 과징금 우려만 해소될 경우 투자심리 큰폭 개선 예상. 외국인 매도가 둔화된데다 최근 유입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하나금융은 3분기 CET 1 비율 하락으로 경쟁사와의 비율 차이가 확대되었고,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 그러나 환율 하락 전환시 긍정적인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 KB금융에 이어 외국인 매수세도 재유입될 것으로 기대

Global Peer Table (2026년 1월 16일 종가 기준)

	PBR (2025F)	PER (2025F)	ROE (2025F)	ROA (2025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2025~)
KOSPI	1.81	32.2	5.6		4,004,879.8	5.5	19.3	29.1	101.7
은행	0.62	7.2	8.8	0.62	173,677.8	2.2	2.6	10.7	62.1
KB금융	0.79	8.5	9.4	0.72	49,933.4	3.4	5.3	14.8	57.9
신한지주	0.66	8.3	8.8	0.64	38,451.2	1.8	3.7	8.3	66.2
우리금융	0.57	6.4	9.2	0.58	20,480.7	2.2	0.7	10.1	81.5
하나금융	0.61	6.7	9.0	0.61	26,830.6	3.8	3.9	12.0	69.7
기업은행	0.46	6.0	7.8	0.56	16,347.2	0.5	-1.9	7.4	43.1
BNK금융	0.43	5.8	7.5	0.52	4,636.3	-2.4	-5.1	4.0	44.5
iM금융	0.36	5.2	7.2	0.44	2,266.4	-2.6	-3.2	5.9	72.5
JB금융	0.75	6.5	12.1	1.02	4,547.7	-2.4	-3.4	5.5	47.1
카카오뱅크	1.49	21.5	7.1	0.72	10,184.2	-1.2	0.5	-4.9	1.4
삼성카드	0.70	9.6	7.4	2.07	6,117.4	1.0	-4.7	6.8	33.8
미국									
S&P 500	5.39	25.9	18.9	4.67	61,637.2	-0.4	2.1	5.0	17.1
은행	1.56	12.9	12.0	1.07	2,121.1	-4.3	-0.2	9.9	17.2
Wells Fargo	1.67	14.2	12.3	1.06	277.4	-7.9	-4.1	5.8	9.5
JPM	2.47	15.5	16.6	1.30	842.5	-5.1	-0.5	5.1	17.5
CITI	1.08	15.7	7.2	0.57	211.2	-2.7	6.1	23.4	48.7
BOA	1.38	14.0	10.5	0.89	386.8	-5.2	-3.4	5.6	10.1
US Bancorp	1.47	11.9	12.7	1.09	84.6	-1.5	2.7	20.3	14.4
PNC	1.62	13.9	12.2	1.15	87.5	2.6	6.3	25.1	19.3
BB&T	1.06	12.5	8.6	0.98	63.9	-1.2	0.6	23.1	6.5
중국									
상해A주지수	1.51	15.9	9.7	1.41	64,917.0	-0.4	7.4	5.3	29.9
은행	0.71	7.4	9.6	0.72	11,943.8	-1.9	-2.0	-1.2	-0.3
공상은행	0.69	7.6	9.3	0.72	2,544.6	-1.3	-2.3	1.5	11.1
건설은행	0.68	6.9	9.9	0.80	1,872.9	-1.2	1.2	-0.6	3.8
농업은행	0.91	9.3	9.8	0.64	2,454.6	-2.7	-2.2	-2.2	36.7
중국은행	0.65	7.4	9.1	0.66	1,624.9	-1.6	-3.4	2.3	-6.7
교통은행	0.53	6.4	8.4	0.62	573.8	-2.8	-3.5	0.3	-10.9
초상은행	0.86	6.7	13.1	1.19	993.8	-3.8	-4.7	-5.2	-12.9
일본									
NIKKEI	2.59	22.0	11.4	3.78	927,543.2	3.8	9.3	11.8	47.4
은행	1.36	16.5	8.2	0.40	115,484.9	9.6	17.9	34.8	78.2
Mitsubishi UHF	1.59	15.6	10.6	0.59	35,484.5	13.2	20.7	29.9	80.0
Sumitomo Mitsui Financial	1.39	13.8	10.5	0.61	21,701.8	7.1	14.5	39.8	60.4
Mizuho	1.53	14.9	10.8	0.44	17,053.0	10.6	21.4	43.9	95.5
Sumitomo Mitsui Trust	1.10	12.2	9.3	0.40	3,633.4	4.0	11.3	24.2	47.3
유럽									
MSCI Europe	2.39	17.6	12.7	1.56	14,952.6	0.8	6.0	7.6	20.6
은행	1.47	11.6	12.6	0.66	1,916.1	2.1	7.7	21.0	67.6
HSBC	1.63	11.6	12.8	0.76	211.6	3.2	10.8	25.4	54.7
Santander	1.55	11.8	13.2	0.76	154.8	2.8	7.3	24.4	124.2
BNP Paribas	0.82	8.6	9.7	0.41	97.4	0.0	10.6	11.8	48.1
Credit Agricole	0.75	8.2	9.4	0.26	53.1	-0.8	1.8	3.8	25.5
Deutsche	0.98	11.2	9.0	0.47	64.2	1.9	5.3	11.6	82.6
Unicredit	1.70	11.1	16.7	1.22	113.1	2.7	4.5	17.5	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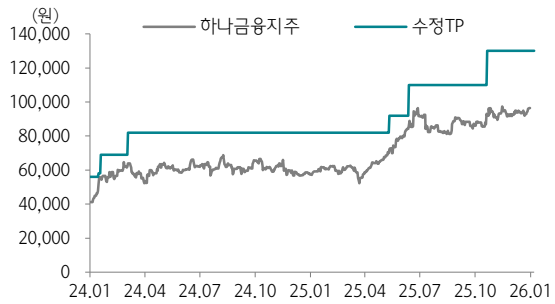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KB금융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7	BUY	178,000		
25.6.30	BUY	147,000	-22.33%	-14.76%
25.5.29	BUY	135,000	-20.30%	-16.81%
24.10.25	BUY	115,000	-24.56%	-11.30%
24.7.24	BUY	110,000	-21.71%	-11.64%
24.7.4	BUY	102,000	-15.97%	-13.43%
24.3.21	BUY	93,000	-19.26%	-9.25%
24.2.5	BUY	79,000	-12.89%	-0.51%
23.9.11	BUY	68,000	-20.92%	-2.50%

하나금융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7	BUY	130,000		
25.6.30	BUY	110,000	-20.85%	-12.27%
25.5.29	BUY	92,000	-14.77%	-8.48%
24.3.21	BUY	82,000	-25.94%	-16.10%
24.2.5	BUY	69,000	-15.85%	-6.38%
24.2.1	BUY	58,000	-3.62%	-3.62%
23.4.5	BUY	56,000	-26.55%	-14.64%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1월 1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1월 19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75%	4.25%	0.00%	100%

* 기준일: 2026년 1월 16일